



오래된 시집



임연태
본지 편집부장

내게는 오래된 시집이 한 권 있다. 표지 좌측 상단에 자명 황청원 박진관 시집이란 명조체가 있고 중앙에는 '歸鄉'이라는 글씨가 붉은 명조체로 새겨져 있다.

1979년 한국문학사에서 펴낸 이 시집은 당시 동국대에 재학 중인 세 스님의 작품이다.

미당 서정주 선생이 서문을 쓰고, 송혁 선생이 시 세계를 조망하고, 정현종 시인이 발문을 붙였으니 대가들의 시선도 상당하게 끝났던 시집이다. 구절 구절 젊은 스님들의 시에 대한 열정을 칭찬하고 있다.

이 시집의 첫 표지를 넘기면 황청원 시인의 서명이 나온다. 나는 당시 청원 스님에게 이 시집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중하게 이 시집을 간직하고 있다. 세 스님의 열정만큼이나 나도 시인을 지망하는 문학 소년의 열병을 앓으면서 살아온 까닭이다. 그 시집 속에는 나의 어린 시절 꿈이 아직 솟송각인 채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시집을 엮은 세 스님. 그들의 삶은 나는 지금까지도 잊고 있다. 환속하여 시를 쓰면서 불교방상을 통해 불음(佛音)을 전파하는 황청원 시인. 한국 사회의 가장 아픈 곳에서 운동가로 살면서 이른바 시국적인 단어들에 화두로 투쟁의 거리를 바쁘게 오가는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장). 그리고 설악산 백담계곡 무금선실(無金禪室)에서 3년 결사를 맺어 옹양정진하고 있는 자명스님.

지금은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화두를 챙겨주고 있지만, 치열한 그들의 삶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내게 낯은 시집 한 권으로 남아 있는 24년 전의 그 젊음이 세 분에게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왜 미·영 연합군은 이라크를 침공하였나. 이번 전쟁은 언제쯤 끝날 것인가. 이 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씩 풀어보자.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와 전쟁을 하는 이유는 테러국가에 대한 응징, 석유자원의 확보, 점단군사무기의 실험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원래 이번 전쟁은 유엔의 결의를 거쳐 합의된 결론을 가지고 이라크를 고립시키는 외교 전략과 군사대응방책을 동시에 하려다가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등을 돌리자 미·영 연합군만이 전쟁을 수행하게 된 것이 아니던가.

전쟁이 끝난 후 미·영의 세계지배구도는 이라크를 교두보로 유지하면서 친미세력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범아랍국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는 러시아·중국에 대한 지역적 봉쇄작전을 펴서 세계의 판도를 확고히 장악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도덕성'(Morality)이라는 것으로, 미국은 세계에서 1등가는 나라가 아니라 1등부터 190등까지의 나라를 통솔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불자 세상보기

황진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이라크 전쟁을 읽는 지혜

어느 나라가 독재정치, 인권탄압 등을 자행한다면 세계의 경찰관으로서 그 나라에 대하여 정치, 경제적, 군사적으로 압력을 가한다. 이런 입장에 대하여 많은 국가들은 '도덕성의 잣대가 불명확하다', '황야의 무법자와 무엇이 다른가', '미국은 아직도 탐욕과 같은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두번째는 '자국의 이익 추구'(National interest)정책이다. 다른 나라가 어찌되었던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는 지극히 이기주의적 가치관이다.

이 도덕성추구정책(민주당)과 자국이익추구정책(공화당)은 대외정책의 근간을 이루면서 마치 야구에서 수비가 끝나면 공격이 되고, 공격이 끝나면 수비가 되듯이 번갈아 가면서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부시행정부부는 이 두 가지의 잣대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미국의 독불장군식 정책기조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세계역사의 흐름은 제1차 세계대전(식민지정벌시대)과 제2차 세계대전(산업혁명시대)을 거쳐 제3차 세계대전(핵

아메리카나 시대에 돌입했다고 본다. 제3차 세계대전은 미·소간의 패권경쟁시대가 끝나고 미국이 전횡을 하는 시대를 말한다. 파스 아메리카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루과이라운드, WTO, 환경라운드 등을 비롯한 '미국식의 표준'을 세계 각국에 들이대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330년간 지속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도 200년간 지속되었으므로 역사의 탄력법칙에 따라 제3차 세계대전도 앞으로 200~300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러한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번 이라크 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논리적으로는 반전(反戰)을 해야 하고, 파병을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세계사의 흐름과 정국의 법칙이 작용하는 국제관계로 볼 때는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의 대립현상이 마치 목숨을 내걸고 하는 듯 하다. 우리나라는 지역간대립, 세대간 대립에다 이제는 참전, 반전의 대립이 하나 더 보태졌다. 이제 이러한 대립적 관계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필요성과 당면 과제

새 정부 들어 문화재관련 기관의 위상 강화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이미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됐고, 현재 1급청인 문화재청을 차관급 청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법안 심사

(17~22일)를 기다리고 있다. 문화재청 위상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임은 학계와 시민단체뿐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지속해서 지적해온 문제. 그 필요성과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없는지 들어봤다. <편집자>

문화재청 위상 강화 더이상 미룰수 없다



▷탁연 스님

▷이춘근

▷황평우

■행정체제 일원화와 함께 진행돼야

조계종단의 문화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에 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어 기쁘기 그지없다. 국가 다음으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종단으로서는 적극 환영하며 이러한 움직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실 8천여 건의 지정문화재와 몇 십 배나 되는 비지정 문화재 전체를 1급 기관인 문화재청의 200여명 남짓한 중앙조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부조직이래야 각 지자체의 몇 안 되는 행정공무원이 다 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차관청 승격은 국가 문화재관리시스템의 개선이라는 보다 큰 틀 아래 이뤄져야 한다. 현재는 문화재라는 하나의 대상을 놓고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두 기관이 전혀 별개의 조직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보완해야 할 조직임에도 제도 자체가 이를 막고 있어 인력 교류의 불가능, 사업의 중복, 지방박물관과 지방문화재연구소의 활용도 저하 등의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조계종단은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뿐 아니라 문화재 관련 기관의 행정체제 일원화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기관이 상위기관이 되어야 하거나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니다. 효율적 문화재관리를 위한 행정체제를 정비 하자는 것이다.

탁연 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청 승격에도 조직·인원 축소, 업무 증가

그 동안 문화유산 관리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작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의 대선공약에 이어 구체적인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문화재청의 차관급 승격이 그 어느 때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99년 5월 문화재관리국이 현재의 문화재청으로 승격되었으나 실제 관리조직이나 인원은 오히려 축소되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할 2국 체제, 1급 기관이기 때문에 겪는 타 기관과의 사전 협의·조정기능 제약, 전문행정인력 절대 부족 등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5만여 점에 이르는 불교문화재의 보호, 도난·도굴 감시 등의 업무는 물론이고 문화재 현장감시시스템 정착, 보호까지 있는 문화유산의 적극적 조사·발굴, 문화재의 활용 및 관광자원화 등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전통문화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역동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 그 동안 경제개발 우선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전통문화의 위치를 되찾기 위해서는 문화유산 보존관리 총괄기관인 문화재청의 위상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이춘근(문화재청 문화재기획과장)

■명칭 '문화유산청'으로 변경할 필요

최근 1급청인 문화재청의 위상을 차관급으로 강화하는 문제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실 가장 소중하게 다뤄져야 할 전통문화가 경제논리, 개발논리에 밀려 주요 국가정책의 외곽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각 계에서도 대부분 문화재청의 차관급 승격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안고 있다. 그러나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직제 상향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차관급에 상응하는 실·국의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체감정기부터 사용되어오던,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 사용하고 있는 재화의 좁은 개념인 '문화재'를, 보다 넓은 의미의 '문화유산'으로 개념을 확대해야 하며 청의 명칭도 '문화유산청'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참여 정부'다. 그 동안 문화유산의 연구와 관리정책은 전문가와 행정가들이 독점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방어적이고 수동적이었던 문화유산제도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첫번째로 문화재위원회의 각 분과(6개 분과)와 신설되는 제도분과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의 참여를 보장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문화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 관리를 위해 새로 출범할 '문화유산청'은 전문직이 정책 결정의 중요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원 소장)

한 복지관장 스님의 '아름다운 퇴임식'

3월 28일, 서울 송파구 삼전종합복지관에서는 조촐한 송별회가 열렸다. 관장 각우 스님을 보내는 날이었다. 떠나는 스님은 퇴직금과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분 4백만원 전액을 후원금으로 내놓았고, 직원들은 스님에게 노트북을 선물했다. 복지관을 서울시 최우수복지관으로 이끌었던 스님에 대한 감사의 자리였다. 마지막 날까지도 복지관에 남다른 애정을 보인 스님의 퇴임식. 아름다운 뒷모습이었다.

장군속미

사찰에 부담 떠넘기는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 포교원이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69개 지하철 역사에 봉축등과 플래카드를 내건다.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전국민적 축제에 승화시키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은 포교원이 부담하지 않는다. 사찰 또는 단체 명의를 넣어주는 대신, 제작·설치·관리 비용을 개개사찰에 부담시킬 계획이다. 좋은 취지로 이뤄지는 만큼 방법 또한 좋은 모양새였으면 더 좋지 않을까.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환본

출판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비싼만큼 그 값을 해냅니다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책을 판단해주는 비기서!

들어서는 사람에게 먼저 말할할 내용들은 앞면에, 묻는 용건에 대한 즉답은 뒷면에 24가지 항목으로 제출시켜 놓았습니다.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 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五術之中帝王」이요, 「神示」라고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장만 빼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들을 미리 알아 문열고 들어서는 사람(전화 온)에게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끔 시간별로 정리 되어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어떤 비밀한 사정을 안고 있는지
-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인지
- 그일이 잘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어느시기에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아니면 무능인 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 인지, 반복되는 일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 一男一女 관계인지 二男一女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뱉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탈이나 음식물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천도·시식·굿·부적)을 행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불응시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 경기 승부에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나간 사람이 올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 잡을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 찾을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은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는지 낮은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가고 있는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 눈 비 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볼 것인지

등 등 인간사의 모든 길흉성부를 즉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임 신수비결(身數泌訣)

찾아온 시간이나 떠난 알아 해당국수를 펼치면, 1년 운세와 월별 길흉과 식구들의 특징 운세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신수도 육임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값 : 300,000원(설명비디오 포함)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하락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하루씩 한장의 시간별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道)를 말 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환인천역(活人天役)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물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입시 선거 구제 취직 승진 매에 입신 가솔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환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책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책입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값 : 2,500,000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 포교원을 여십니까? ▶ 독살림을 계획 하십니까?
▶ 살림이 여의치 않습니까? ▶ 오행을 몰라 애로로 겪습니까? 이책이 해결해 드립니다.
▶ 각종 카드로 구입 할 수 있습니다.